

청소년의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애, 자기개념명확성의 조절효과

차재선* · 임성문**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애와 자기개념명확성의 중재효과를 탐색하여, 공격성에 미치는 자기애적 자존감의 영향에 자기개념명확성이 조절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충청지역 3개 고등학교 학생 784명을 대상으로 자존감 척도, 자기애적 성격검사, 자기개념명확성 척도, 공격성 척도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먼저 자존감, 자기애, 자기개념명확성, 공격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애와 자기개념명확성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자존감과 자기개념명확성은 낮을수록, 자기애는 높을수록 공격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격성에 대한 자존감, 자기애, 자기개념명확성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자기개념명확성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공격성에 대한 자존감과 자기애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반면에 자기개념명확성 점수가 높은 경우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자존감과 결합된 자기애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개념명확성의 수준에 따라 영향력과 양상이 차이가 남을 의미하며, 자기개념명확성 수준이 높은 경우 자기애 점수가 높은 학생들과 자기애 점수가 낮은 학생들 모두 자존감 수준이 증가할수록 공격성이 일관되게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 기초해 자기개념명확성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상담개입 방안에 대한 시사점이 기술되었다.

주제어: 청소년, 공격성, 자존감, 자기애, 자기개념명확성

*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신저자, sungmoon@cbnu.ac.kr

I. 서론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었던 학교폭력과 같은 청소년의 공격행동은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같은 현장 맞춤형 정책의 개입으로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장면에서 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SNS 폭력 등 학교안에 머무르지 않는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청소년들이 학교장면 안에서 경험한 피해유형은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신체폭행, 스토킹, 사이버괴롭힘 등으로 다양했으며, 가해 이유는 ‘장난으로(31.3%)’, ‘피해학생이 마음에 안 들어서(21.0%)’, ‘먼저 괴롭혀서(17.5%)’, ‘이유없음(10.0%)’의 순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4, 2016). 이와 같이 청소년들의 폭력에 대한 낮은 인식과 특별한 이유나 계기가 없는 폭력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공격성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공격성은 타인이나 어떤 대상에게 심리적 또는 신체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파괴적이고 처벌적 의도가 있는 행동으로 정의되며(Loeber & Stouthamer-Loeber, 1998; Mathieson & Crick, 2010), 공격성이 타인에게 향할 경우 범죄와 폭력행동을 행할 수 있고, 자신에게 향할 경우 자해나 자살을 시도할 수도 있다(Greening, Stoppelbein, Luebbe & Fite, 2010). 특히 청소년의 높은 공격성은 약물사용, 비행, 만성폭력을 강하게 예측하는 지표로 행동적인 적응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발달적으로 지속적이고 점차 악화되어 반항성 장애, 품행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성인기까지 만성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Broidy et al., 2003; Farrell, Sullivan, Esposito, Meyer & Valois, 2005).

지금까지 이루어진 청소년 공격성의 원인 및 그 관련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개인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개인외적 요인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 학대, 가정폭력 노출경험 등과 같은 가정 환경적인 요인과(권민정, 박주희, 2015; 이승주, 정병수, 2015; Kuppens, Laurent, Heyvaert & Onghean, 2013) 학업 스트레스, 또래관계 스트레스, 외상 후 스트레스(송미옥, 이승희, 2011; 정주영, 2015; Scott, Lapre, Marsee & Weems, 2014)등의 사회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개인내적 요인에서는 자존감, 자기에, 지배성, 비합리적 신념 등과 같은 변인들이 많이 연구되어 왔다(서수균, 2011; 서수균, 권석만, 2002a; 손은정, 장유진, 2010; Rasmussen, 2016).

그 중 개인이 지닌 사고의 틀, 자기개념, 성격특성을 포함하는 개인내적 요인은 일

상생활에서 타인의 부정적인 말과 행동에 대해 불쾌감을 경험할 때 공격적으로 반응하거나 반응하지 않는 개인차를 설명하는 중요한 기제라고 볼 수 있다. 개인내적 요인 중 청소년기 특성과 함께 고려해야 할 심리적 변인은 자존감이다. 자존감은 자아정체감을 확립해가는 청소년기에 건강한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며 자신을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반적인 자기가치감으로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가치평가의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Rosenberg, 1979). Rosenberg(1979)는 자존감을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성향을 갖는 비교적 안정적인 태도라고 보았으며, 순간의 태도나 상황에 따른 일시적인 반응이 아닌 미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안정적인 성격 특질로 간주해왔다(Trzesniewski, Donnellan & Robins, 2003).

그간의 연구에서 높은 자존감은 자신을 가치있는 존재로 보고, 안녕감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낮은 자존감은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보며 불만족스러워하고 정신병리로 발전될 수 있음이 보고되어 왔다(Orth, Robins & Roberts, 2008).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로 낮은 자존감이 여러 부정적인 양상들과 관련이 있으며, 자존감이 낮을수록 자존감을 증가시키기 위한 보상적 행동으로 공격행동을 표출한다고 설명되어 왔다(Anderson, 1994; Jankowski, 1991; Long, 1990; Toch, 1993).

그러나 자존감과 공격성의 경험적인 연구 결과들은 이를 일관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오히려 높은 자존감이 더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나타낸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었고(Baumeister, Smart & Boden, 1996; Baumeister, Bushman & Campbell, 2000), 일부의 연구에서는 낮은 자존감과 공격성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Konrath, Bushman & Campbell, 2006; Twenge & Campbell, 2003).

이러한 비일관적인 연구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들로 논의를 확장했으며(Ang & Yusof, 2005; Walker & Bright, 2009), 그 중 Bushman과 Baumeister(1998)는 자기에 주목한 바 있다. 자기에 대한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과장된 지각을 갖는 것으로 자기에 적응적으로 발달하면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 자존감을 잃지 않게 하고 고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적응적으로 발달한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평가가 위협받는 상황이나 자존감이 실추되는 경험에 대해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며(Baumeister, 1997), 분노감을 자주 경험하고 일관되게 공격성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이 보고되어 왔다(Bushman &

Baumeister, 1998; Raskin, Novacek & Hogan, 1991; Wink, 1991).

자존감이 높은 집단을 자존감이 높으면서 공격적인 집단과 자존감이 높으면서 공격적이지 않은 이질적인 두 집단으로 구분 할 때, 자존감이 높으면서 공격적인 집단이 보이는 특성은 높은 자기에적 성향을 가진 집단이 나타내는 특성과 서로 유사하였기 때문에 자존감과 자기에를 함께 묶어 공격성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김은희, 강승호, 2010).

Papps와 O'Carroll(1998)은 자존감과 자기에 수준에 따라 높은 자존감과 높은 자기에 집단, 높은 자존감과 낮은 자기에 집단, 낮은 자존감과 높은 자기에 집단, 낮은 자존감과 낮은 자기에 집단으로 구분한 결과 높은 자존감과 높은 자기에 집단의 공격성과 분노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고, Bushman, Baumeister, Thomaes, Ryu, Begeer와 West (2009)에서도 마찬가지로 높은 자존감과 결합된 자기에 성향이 가장 높은 공격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Barry, Frick와 Killian(2003)은 자존감 및 자기에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높은 자기에성향 집단이 낮은 자존감과 혼재되었을 때 더욱 심한 문제 행동을 보임을 제시했다. 국내의 이세연과 유미숙(2010)의 연구에서도 자존감 수준이 낮고 자기에 성향이 높은 집단이 가장 높은 공격성을 보였다.

이렇듯 자존감과 자기에로 공격성을 예측했을 때 일치하지 않는 연구결과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중재변인의 존재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수균과 권석만(2002a)은 자존감과 자기에 성향 그리고 공격성 사이에 어떤 매개변인이나 중재변인이 작용하는지 밝히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포괄적 검색결과 지금까지 자존감과 자기에가 공격성과 갖는 관계에서의 중재변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연구에서 변인들의 주효과 보다는 연관된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해석상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Keppel & Zedeck, 1989), 각 변인간 관계를 적응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하는 조절변인을 탐색하는 것은 임상적으로 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높은 자존감을 보이면서 공격행동을 보이는 사람과 자기에 성향자의 공통점은 부정적 단서에 대해서 자존감이 쉽게 하락하고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자존감을 높게 유지하려는 동기가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기개념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격적인 반응을 강하게 보임이 제시되었다(Bushman & Baumeister, 1998; Papps & O'Carroll, 1998; Stucke & Sporer, 2002). 즉 이들은 분노표출과 공격행동

을 통해서 손상된 자기개념을 방어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격성을 표출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취약한 자기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고(최정인, 2008; Bogart, Benotsch & Pavlovic, 2004), 공격성과 부정적인 정서적 취약성을 예측하는데 있어 자기개념명확성과 같은 자기관련 변인이 중요요인이라는 주장이 제안되어왔다(황성훈, 2010; Donahue, Robinson, Roberts & John, 1993).

자기개념은 다차원적이고 다면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에 대한 믿음과 평가와 기억을 포함한다(Linville, 1987; Markus & Nurius, 1986). 또한 자기 관련 정보의 처리를 조절하는 역동적이고 포괄적이며 조직화된 지식 구조로(Campbell et al., 1996),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정규, 1999). 자기개념명확성은 개인의 자기개념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명확하게 정의되고, 내적으로 일관되며, 시간적으로 안정적인가의 정도로 정의된다(Campbell, 1990; Campbell et al., 1996). 즉,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의 인식으로 자신의 태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인지적인 측면을 다루며, 자신에 대한 확신성과 일관성이 높고 안정적일 때 자기개념명확성의 높음을 의미하고 자신에 대한 확신성과 일관성이 낮아 스스로 혼란스러움을 느낄 때 자기개념명확성의 낮음을 의미한다(양명희, 김은진, 2007).

높은 자기개념명확성은 긍정정서의 경험, 정서의 균형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백수희, 2002; Bigler, Neimeyer & Brown, 2001), 자기개념명확성이 높은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유기적인 자기개념을 갖고 있으며, 낮은 사람에 비하여 부정적인 정보에 편향되는 경향이 낮고, 자아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정도도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Campbell, Assanand & Paula, 2003). 반면 낮은 자기개념명확성은 명확하게 부정적인 자기개념이 아닌 중립적인 자기평가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 불안정성, 비일관성을 특징으로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 특히 부정적 피드백에 더욱 민감하고(Stopa, Brown, Luke & Hirsch, 2010) 사회적 갈등상황에서 쉽게 위협을 느껴 이성적이고 건설적인 문제해결을 하지 못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Nezlek & Plesko, 2001).

사회인지적 관점에서 자기개념을 설명하는 이론은 자기개념의 내용(content)차원과 구조(structure)차원으로 분리하여 진행되고 있다(Campbell et al., 1996; Markus & Wurf, 1987). 자기개념의 내용차원은 지식적 요소와 평가적 요소로 세분화되며, 자신의 역할, 가치, 개인적 목표와 신념 등은 지식적 요소에 포함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자기평가는 평가적 요소에 포함된다. 자기개념의

구조차원은 자기개념의 내용이나 자기신념이 조직화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자기지식이 구성되는 방식에 따라 다원적 요소는 자기복잡성으로 통합적 요소는 자기개념명확성으로 세분화되고 있다(Campbell et al., 1996). 이렇듯 자존감과 자기개념명확성은 독립적인 구성개념으로 간주된다(Campbell, Assanand & Paula, 2003).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은 자기개념의 내용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왔으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자신에 대한 내용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고려하는 자기개념의 구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Stopa, 2009),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의 정신건강 예측에 자기개념명확성이 자존감보다 높은 설명력을 보여 자존감의 수준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고유하게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임임이 제시되고 있다(고현석, 민경환, 김민희, 2012). 이와 같이 자기개념명확성은 자기개념간의 일치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신건강에 위협이 되는 긍정적인 자기평가가 위협받는 상황이나 자존감이 실추되는 경험에 대해서 높은 자기개념명확성을 갖추고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일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자존감과 자기에 및 자기개념명확성의 세 변인을 함께 다룬 연구는 발견할 수 없었지만, 몇몇 연구들은 자기에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의 중재효과를 보여주었다. 자기에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이 공격성의 예측에 효과적임을 주장한 Stucke와 Sporer(2002)는 높은 수준의 자기에와 낮은 수준의 자기개념명확성을 보인 집단이 더 쉽게 분노와 공격성을 나타냄을 밝혔다. 또한 이준득 등(2007)의 연구에서도 자기개념명확성의 수준에 따라 외현적 자기에 집단을 구분하여 공격성 점수의 차이를 검증해보았을 때, 외현적 자기에 집단 중 자기개념명확성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더 공격적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처럼 낮은 수준의 자기개념명확성을 지닌 사람들은 자기에의 부적응적인 자극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이는 자신에 대한 신념이 일관되지 않아 부정적인 피드백에 민감하고 외부의 부정적인 단서들을 실제보다 더 위협적으로 지각하여 더 쉽게 부정적이 됨(김지윤, 이동귀, 2013)이 추론될 수 있다.

그리고 강일선(2005)의 연구에서는 자기에와 자기개념명확성의 수준에 따라 집단을 구분했을 때, 자기에 수준이 높고, 자기개념명확성 수준이 낮은 집단이 가장 높은 수준의 특성분노를 보여 다른 집단들에 비해 분노를 자주, 강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노표출에 있어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분노억제 성향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기에 수준에 상관없이 낮은 자기개념명확성을 가진 개인들이 스스로의 정서를 적절히 다루고 표현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시사됨을 밝혔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앞에서 진술한 바 있는 자기에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존감 수준에 따라 일치하지 않는 영향을 보여준 연구들(이세연, 유미숙, 2010; Barry et al., 2003; Bushman et al., 2009)에 하나의 가능한 설명을 시사한다. 즉, 불안정한 자존감과 자기에적 성향이 높은 개인은 명확하지 않은 자기개념을 유지할 때 부정적인 단서에 대해서 자존감이 쉽게 하락하고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여 높은 분노감과 공격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명확한 자기개념을 갖고 있다면 타인의 평가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자신의 내적 기준에 따라 적절히 처리할 것이며, 높은 자기개념명확성은 부정적인 단서에 대해서 자존감이 쉽게 하락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경험적 연구는 자존감, 자기에, 자기개념명확성과 공격성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다루어 왔을 뿐, 이 세 개의 개념을 아우르는 합의된 결론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술한 연구 결과들에 기초하여 공격성에 대한 자존감과 자기에의 상호작용 효과는 자기개념명확성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추론되며, 이에 따라 자존감, 자기에, 자기개념명확성의 삼원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높은 수준의 자기개념명확성은 자존감 유지가 불확실한 상황을 접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위협감을 낮추고 자기에적인 자존감의 불안정성을 보완하여 방어적인 반응에서 벗어나 공격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자존감, 자기에, 자기개념명확성이 청소년의 공격성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탐색하고,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에 성향과 자기개념명확성의 중재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즉 자존감과 상호작용하여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에 성향의 위협요인적인 효과를 차단 또는 완화시키기 위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리라 추정되는 자기개념명확성의 완충적 조절효과를 알아봄으로써 청소년의 공격성을 적응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하는 중재변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대전시, 충청북도 지역에 소재한 3개 고교의 고등학생을 임의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84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56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784명의 자료만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 대상자 중 남학생은 477명(60.8%), 여학생은 307명(39.2%)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391명(49.9%), 2학년 393명(50.1%)이었다.

2. 측정도구

1) 공격성질문지(Aggression Questionnaire-Korean version: AQ-K)

이 척도는 Buss와 Perry(1992)가 공격성 측정을 위해 제작한 척도로 국내에서 서수균과 권석만(2002b)이 번안하여 한국판으로 개발하였다.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적 공격행동, 언어적 공격행동, 분노감, 적대감의 네 가지 하위요인 구조를 가진다. Likert형의 5점 평정척도로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5점, '매우 그렇다'로 평가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되는 특징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서수균과 권석만(2002b)이 보고한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86이었으며, 5주 간격으로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1이었다. 본 검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86으로 나타났다.

2) Rosenberg 자존감 척도(Self-Esteem Scale: SES)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존감 척도는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전반적인 자존감을 측정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이며 각 문항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1점(전혀 아니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문항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채점되었다. 척도 개발 당시 검증된 자존감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5였다.

3) 자기에적 성격검사(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

한수정(1999)이 번안하여 수정 및 보완한 Raskin과 Hall(1979)의 자기에 성격 검사지로 DSM-III의 자기에적 성격장애 진단기준에 근거하여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개발한 자기에 측정도구이다. 각 문항들은 “A.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를 갖는 것을 좋아한다”와 “B. 나는 별로 개의치 않고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른다”, “A. 나는 다른 사람 속에 섞여 있는 것을 좋아한다”와 “B. 나는 여러 사람에게서 주목받는 것을 좋아한다”와 같은 형식의 쌍으로 자기에를 나타내는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으로 구성된 두 문장이 제시되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에 성향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한수정(1999)은 반분신뢰도를 .85로 보고하였으며, Raskin과 Hall(1979)은 8주간의 동형검사 신뢰도를 .72로 보고하였다. 본 검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84로 나타났다.

4) 자기개념명확성 척도(Self-Concept Clarity Scale : SCCS)

자기개념명확성 척도는 Campbell 등(1996)이 자기개념에 대한 확신성, 내적 일관성, 시간적 안정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김대익(1998)이 번안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은 “나는 내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내 자신에 대한 나의 생각이 매우 자주 바뀌는 것 같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때가 있다” 등 자기개념이 어느 정도로 명확한지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5점 Likert형(1= 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개념명확성 수준이 높고 자기개념의 구조가 명확함을 시사한다. Campbell 등(1996)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8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77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설문지 조사방법으로 각 지역의 고등학교에 사전협조를 요청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에 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설문지는 순서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척도들의 배열 순서를 달리한 여러 개의 세트로 구성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였고, 각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를 알아보고, 빈도분석과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청소년의 자존감, 자기에, 자기개념명확성과 공격성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주요 변인들간 상관관계

각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한 결과 변인들간의 상관이 모두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으며 표 1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공격성은 자존감($r = -.180, p < .01$), 자기개념명확성($r = -.340, p < .01$)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 자기에($r = .165, p < .01$)와는 정적상관을 보였다. 자존감은 자기에($r = .408, p < .01$), 자기개념명확성($r = .485, p < .01$)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자기에는 자기개념명확성($r = .206, p < .01$)과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자존감, 자기에, 자기개념명확성은 모두 자기관련 변인으로 세 변인이 서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다른 변인과의 관계에서 순수한 상관관계 보다는 높거나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각 변인간의 순수한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세 변인 중 하나의 변인을 통제한 상태로 편 상관분석(partial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먼저, 변인들과의 관계에서 자기에 성향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자기에적 성향 점수를 통제하였다. 자존감과 공격성의 상관은 $-.180(p < .01)$ 에서 $-.275(p < .01)$ 로 증가하였고, 자기개념명확성과 공격성의 상관은 $-.340(p < .01)$ 에서 $-.388(p < .001)$ 로

증가하였다. 자기애를 통제한 후 자존감과 자기개념명확성의 상관은 .485($p < .01$)에서 .449($p < .001$)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변인들과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자존감 점수를 통제하였다. 자기애와 공격성의 상관은 .165($p < .01$)에서 .266($p < .01$)로 증가하였고, 자기개념명확성과 공격성의 상관은 -.340($p < .01$)에서 -.294($p < .001$)로 감소하였다. 자기애와 자기개념명확성은 자존감 통제 전에는 .206($p < .01$)의 정적상관을 보였으나 자존감 통제 후에는 .011($p > .05$)로 감소하였고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자기개념명확성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자기개념명확성 점수를 통제하였다. 자존감과 공격성의 상관은 -.180($p < .01$)에서 -.018($p > .05$)로 감소하였고,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자기애와 공격성의 상관은 .165($p < .01$)에서 .256($p < .001$)으로 증가하였다. 자존감과 자기애의 상관은 자기개념명확성 통제 후에 .408($p < .01$)에서 .359($p < .001$)로 감소하였다.

표 1
자존감, 자기애, 자기개념명확성과 공격성 간 상관관계

	공격성	자존감 (SES)	자기애 (NPI)	자기개념 명확성 (SCC)
1. 공격성	1			
2. 자존감	-.180**	1		
NPI 통제시	-.275**			
SCC통제시	-.018			
3. 자기애	.165**	.408**	1	
SES 통제시	.266**			
SCC통제시	.256***	.359***		
4. 자기개념명확성	-.340**	.485**	.206**	1
SES 통제시	-.294***		.011	
NPI 통제시	-.388***	.449***		
평균	63.135	34.345	16.719	36.477
표준편차	14.329	6.469	7.074	6.438

주. SES: 자존감, NPI: 자기애, SCC: 자기개념명확성.

* $p < .05$, ** $p < .01$, *** $p < .001$

2.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애와 자기개념명확성의 조절효과 검증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애와 자기개념명확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1단계에서는 자존감, 자기애, 자기개념명확성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각 변인간의 이원 상호작용 항(자존감x자기애, 자존감x자기개념명확성, 자기애x자기개념명확성)을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세 변인으로 이루어진 삼원 상호작용 항(자존감x자기애x자기개념명확성)을 투입하였다. 이때 조절효과 변인은 다중공선성을 제거하기 위해 각 독립변인을 평균변환하여 편차점수로 변환한 후 곱해주는 센터링(centering)과정을 거쳤다(박광배, 2003). Tate(1984)에 의하면 독립변수를 각각의 평균과의 차이로 표현하는 평균변환을 하면 다중공선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으며,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의 추정치가 명확하게 해석된다는 장점을 얻을 수 있고, 이러한 절차는 다중공선성을 해결하는데 가장 효과적임을 제시하였다(이유재, 1994).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 결과, 공격성에 대한 자존감, 자기애, 자기개념명확성의 주효과와 자존감과 자기애의 이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자존감 및 자기애와 자기개념명확성이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삼원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냈다. 상호작용 효과를 포함하지 않은 첫 번째 단계에서의 설명 변량은 약 18.6%($\Delta R^2=.186$)를 보였다. 그러나 이원상호작용 효과를 포함하는 두 번째 단계에서 설명 변량의 변화량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삼원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세 번째 단계에서 설명 변량의 변화량은 약 0.5%($\Delta R^2=.005$, $p < .05$)로 유의미하였다. 즉, 공격성에 대한 자존감, 자기애, 그리고 자기개념명확성의 유의미한 삼원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표 2
자존감과 공격성 사이에서 자기에와 자기개념명확성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종속 변수	단계	예측변인	B	β	t	R^2	ΔR^2	F
공격성	1	자존감(A)	-.302	-.136	-3.442**			
		자기애(B)	.587	.290	8.185***	.186	.186***	59.417***
		자기개념명확성(C)	-.743	-.334	-9.041***			
	2	자존감(A)	-.302	-.136	-3.430**			
		자기애(B)	.586	.289	8.171***			
		자기개념명확성(C)	-.736	-.331	-8.890***			
		A×B	.025	.081	2.120*	.191	.005	30.600***
		A×C	.004	.012	.345			
		B×C	-.015	-.051	-1.273			
	3	자존감(A)	-.276	-.125	-3.121**			
		자기애(B)	.650	.321	8.366***			
		자기개념명확성(C)	-.683	-.307	-7.901***			
		A×B	.023	.075	1.963	.196	.005*	26.984***
		A×C	.005	.016	.430			
B×C		-.012	-.040	-.983				
A×B×C	-.003	-.086	-2.113*					

* $p < .05$, ** $p < .01$, *** $p < .001$

삼원 상호작용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후 분석에서 자기개념명확성 점수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연구 참여자를 상하 두 집단으로 분류한 후 공격성에 대한 자존감과 자기애의 상호작용 효과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기개념명확성 점수가 낮은 집단에서는

공격성에 대한 자존감과 자기에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반면에($F=8.349, p < .01$), 자기개념명확성 점수가 높은 집단에서는 공격성에 대한 자존감과 자기에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F=.027,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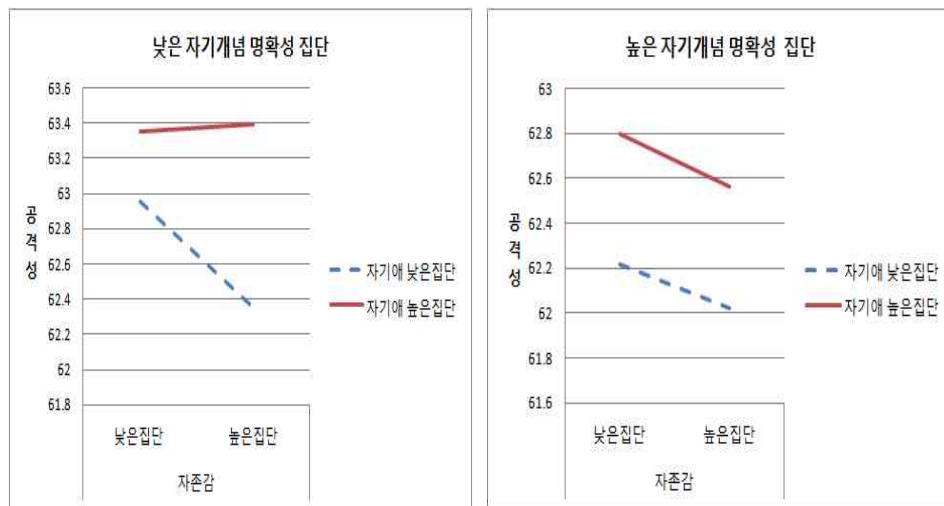


그림 1. 공격성에 대한 자존감, 자기에, 자기개념명확성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

공격성에 대한 자존감, 자기에 및 자기개념명확성의 삼원 상호작용 양상이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자기개념명확성 점수가 낮은 집단에서, 자기에 성향 점수가 높은 학생들은 자존감 수준에 따른 공격성 변화량이 미미하였다. 반면 자기에 점수가 낮은 학생은 자존감 수준이 높아질수록 공격성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자기개념명확성 점수가 높은 집단에서, 자기에 점수가 높은 학생들의 경우 자존감 점수가 높아질수록 공격성 수준이 일정 정도 감소하였다. 자기에가 낮은 학생들 역시 자존감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기에가 높은 학생들과 같은 비율로 공격성 수준이 감소하였다.

IV.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자존감, 자기에, 자기개념명확성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에 자기에와 자기개념명확성의 중재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존감, 자기에, 자기개념명확성은 모두 자기 관련 변인으로 세 변인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각 변인이 다른 변인과의 순수한 상관관계 보다는 상관이 높거나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각 변인간의 순수한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세 변인 중 하나의 변인을 개별적으로 통제하여 각 변인들과 공격성과의 관련성을 동시에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존감, 자기에 및 자기개념명확성과 공격성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그 중 공격성과 부적인 상관을 보인 변인들은 자존감, 자기개념명확성으로 이는 자존감과 자기개념명확성이 높을수록 공격성의 수준이 완화됨을 의미한다. 자기에 성향의 영향을 통제하자,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는 자기에 통제 전 $-.180$ 에서 자기에 통제 후 $-.275$ 로 부적인 연관성이 상승하는 양상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낮은 자존감이 단독으로 공격성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하는 선행연구들(Donnellan et al., 2005; Webster, 2006)과 다르게, 자존감과 공격행동은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들(Bushman & Baumeister, 1998; Baumeister et al., 2000; Salmivalli, 2001)이 자기에 성향을 통제하지 않은 결과일 수 있다는 서수균과 권석만(2002a)의 설명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반면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의 영향을 통제하자,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는 자기개념명확성 통제 전 $-.180$ 에서 통제 후 $-.018$ 로 부적인 연관성이 감소하는 양상으로 변화하였고,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낮은 자존감과 공격성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Konrath, Bushman & Campbell, 2006; Twenge & Campbell, 2003)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이렇듯 자존감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자기에와 자기개념명확성의 영향을 각각 통제하자, 공격성과의 부적상관이 크게 증가하거나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 등 관계에서 큰 변화양상을 보임으로써, 그동안의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비일관적인 연구결과는 자기에와 자기개념명확성 등 자존감과 관련된 자기 관련 변인들이 관련되어

있을 수 있음이 시사된다.

한편, 자기개념명확성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자존감보다 더 높은 부적 관련을 보였으며, 자존감과 자기애의 영향을 통제하여도 공격성과의 상관관계에서 약간의 변화를 보였을 뿐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Stucke와 Sporer(2002)가 제시한 자기개념명확성이 공격성의 예측에 더욱 효과적이란 주장과 일치하며,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의 정도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일관성이 낮고 혼란스러운 정도에 따라 공격성이 증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자기개념이 명확하여 내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자기 이해가 일관되고 명확한 상태(Campbell, 1990)일수록 공격성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반면 자기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자기개념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부정적인 피드백과 같은 외적인 상황 및 단서에 더욱 취약해지기 쉬움을 의미하며, 이것이 공격성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을 보여준다.

둘째, 청소년의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애와 자기개념명확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본 결과, 공격성에 대한 자존감과 자기애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격성에 대한 자존감과 자기개념명확성, 자기애와 자기개념명확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먼저 공격성에 대한 자존감과 자기애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은 자존감과 자기애 수준에 따라 공격성에서 차이를 보였던 선행연구(이세연, 유미숙, 2010; 서수균, 권석만, 2002a; Bushman & Baumeister, 1998)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반면 자기애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 수준에 따른 관계 양상의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들(강선영, 홍혜영, 2012; Stucke & Sporer, 2002)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에 대한 가능한 해석으로, 자기개념명확성이 자기애적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애적 성향의 전체에 대해서는 중재효과를 보이지 않았던 길주현과 오경자(2008)를 참고할만하다. 길주현과 오경자(2008)는 자기애를 단일 개념이 아닌 이질적인 차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았으며, 자기애의 세부 특성 각각에 대해 자기개념명확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때 자기개념명확성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자기애적 성향 전체에 대한 중재효과를 보이지 않았지만, 여학생 집단의 경우 특권의식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기개념명확성이 중재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생 집단에서는

허영심과 공격성의 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기에
 는 실질적인 차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하위척도에
 따른 변량의 개인차와 표집차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자기개념명확성의 중재역할에
 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격성에 대한 자존감, 자기에, 자기개념명확성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
 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개념명확성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공격성에 대한
 자존감과 자기에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반면에, 자기개념명확성 점수가 높은
 경우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자존감과 결합된 자기에가 공격
 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개념명확성의 수준에 따라 영향력과 양상이 차이가 남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자기개념명확성이 낮을 경우 높은 자기에적 성향을 갖고 있다
 면 자존감 수준에 따라 공격성 변화량이 미미했으며, 낮은 자기에적 성향을 갖고 있
 다면 자존감 수준에 따른 큰 폭의 공격성 변화량이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개념명확성
 이 낮은 경우에 높은 자존감과 높은 자기에적 성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였다. 이는 높은 자존감과 결합된 자기에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
 이 가장 높은 공격성을 보인다는 연구(Bushman et al., 2009; Papps & O'Carroll,
 1998)와 유사한 맥락으로 자기개념명확성이 낮을 때 높은 자존감과 높은 자기에적 성
 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
 다. 반면, 자기개념명확성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자기에 점수가 높은 학생들과 자기에
 점수가 낮은 학생들 모두 자존감 수준이 증가할수록 공격성이 일관되게 감소하였
 다. 이렇듯 높은 자존감과 결합된 자기에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기저의 자존감이
 취약한 사람으로 이로 인한 높은 공격성이 예측되는데(서수균, 2007), 본 연구결과는
 높은 자기개념명확성이 이를 완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높은 자존감
 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에적인 성향의 영향
 과 부정적인 평가 및 피드백에 휘둘려 중심을 잡기 어려울 수 있고 이는 공격성과
 같은 부적 정서를 야기한다. 자기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 부정적인 평가 및 피
 드백을 빈번히 경험한다면 이는 개인의 정서에 위협이 되는 경험인 것이다. 즉, 자기
 개념이 얼마나 명확하고 일관적인지에 따라 높은 자존감과 높은 자기에가 공격적인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명확한 자기개념을 갖도
 록 돕는 것이 높은 자존감과 높은 자기에적 성향으로 인한 공격성 감소의 효과적인

개입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자존감, 자기애와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이전 연구들에서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임으로서 조절변인의 존재가 시사되었다. 이에 따라 공격성에 미치는 자존감과 자기애의 상호작용 효과를 중재하는 요인으로 자기개념명확성을 상정하여 그 중재효과를 검증하여 입증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높은 자존감과 높은 자기애 성향으로 인한 청소년의 공격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경험적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먼저 상담에서 공격성 문제를 호소하는 내담자에게 개입할 때 내담자의 자존감과 자기애, 자기개념명확성의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높은 자존감과 높은 자기애적 성향을 보이는 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탐구적 동기를 높여 있는 그대로의 자기경험을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자기개념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자신에 대한 이해가 증립적이고 불명확할 경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몰라서 사회적 평가에 민감하고 사회적 갈등상황에서 건설적인 문제해결보다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기에 타인에게서 받는 부정적 피드백에 유연하게 대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Lochman & Wells, 1996) 긍정적이고 일관되며 명확한 자기개념을 갖도록 도와 내담자의 문제해결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간 청소년의 공격성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연구에서 분노조절, 자존감 향상, 공감증진 등의 개입방안이 시행되어 왔으나 자기개념명확성 향상을 위한 개입 연구는 발견할 수 없다. 공격성 감소를 위해 자존감뿐만 아니라 자기개념명확성을 비롯한 다양한 자기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와 경로를 파악한 구조모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결과가 시사하듯 자기개념명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방안의 개발과 그 효과검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자기애가 높고 자존감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자기개념명확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되므로, 비행청소년 등의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 개입 이전에 관련 변인의 측정을 통한 감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자존감 또는 자기개념명확성 하나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두 변인간의 독립적이고 상보적인 관계를 명확히 알고, 자기진술(self-description)간의 내적일관성을 명확히 하는 개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발달시기에 따른 공격성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에서 성차를 보이는 학

령기 초기와는 달리 청소년기에는 공격성을 드러내는 패턴이 유사해진다는 연구(Cairns et al., 1989)와 경험적 연구(강선영, 홍혜영, 2012; 서수균, 권석만, 2002a; Papps & O'Carroll, 1998)를 토대로 공격성에서 성차를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에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존감이 중재할 때 성차를 보인다는 최근 연구가 보고되고 있기에(Barnett & Powell, 2016), 후속연구에서는 발달에 따른 공격성의 변화과정과 자존감, 자기에, 자기개념명확성의 관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성별과 발달시기에 따른 공격성의 변화를 중재할 수 있는 변인의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자존감과 공격성의 합의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자기에 요소가 공격성을 설명한다고 본 연구도 있지만, 불안정한 자존감이 공격성을 설명한다는 연구도 제시되었다(Kernis, Grannerman & Barclay, 1989; Kernis, 2003). 이들은 개인이 의식하는 외현적 자존감과 의식하지 않지만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암묵적 자존감의 불균형으로 일치하지 않는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의식하는 외현적 자존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암묵적 자존감도 함께 고려하여 자기관련 변인들과 공격성의 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선영, 홍혜영 (2012). 직장인의 자기애와 공격성의 관계: 자기개념명확성의 조절효과. **통합치료연구**, 4(1), 25-51.
- 강일선 (2005). **자기애와 자기 개념의 명확성이 분노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고현석, 민경환, 김민희 (2012).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 자기개념명료성과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3), 825-846.
- 교육부 (2014). '201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교육부 웹사이트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tPage=0&encodeYn=N&boardSeq=57762&mode=view>에서 2016년 9월 3일 인출.
- 교육부 (2016). '201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교육부 웹사이트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tPage=0&encodeYn=N&boardSeq=63780&mode=view>에서 2016년 9월 3일 인출.
- 권민정, 박주희 (2015).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이 중학생의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아동학회지**, 36(4), 71-89.
- 길주현, 오경자 (2008). 자기애의 세부특성과 자기개념명확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4), 911-924.
- 김대익 (1998). **한국인의 자아개념 명료성에 대한 연구: 성격, 자의식, 행동에 관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희, 강승호 (2010). 자존감,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공격성 간의 관계: 교도소 수용자를 대상으로. **교정연구**, 47, 119-143.
- 김정규 (1999). **성신자기개념검사**. 서울: 한국가이던스.
- 김지윤, 이동귀 (2013).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자기개념명확성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4(1), 63-82.
- 박광배 (2003). **변량분석과 회귀분석**. 서울: 학지사.
- 백수희 (2002). **자기존중감, 자기명확성과 타인의 평가에 따른 정서적 반응**.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수균 (2007). 자존감과 자기애 수준에 따른 분노사고, 신념, 분노표현의 차이. **한국**

-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719-734.
- 서수균 (2011). 비합리적 신념과 공격성 사이에서 부적응적 인지전략과 대인관계양상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4), 901-919.
- 서수균, 권석만 (2002a). 자존감 및 자기에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809-826.
- 서수균, 권석만 (2002b).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487-501.
- 손은정, 장유진 (2010). 청소년의 성과 공격성 유형에 따른 자기에와 지배성의 차이. **청소년시설환경**, 8(1), 3-10.
- 송미옥, 이승희 (2011). 부모애착과 또래관계 스트레스가 여중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발달장애연구**, 15(2), 1-20.
- 양명희, 김은진 (2007). 청소년의 분노와 자기개념명확성, 성격 특성과의 관련성 탐구. **한국청소년연구**, 18(1), 163-184.
- 이세연, 유미숙 (2010). 청소년의 자기에 및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7), 101-128.
- 이승주, 정병수 (2015).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관계: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경찰학회보**, 52, 223-250.
- 이유재 (1994). 상호작용효과를 포함한 다중회귀분석에서 주효과의 검증에 대한 연구. **경영학연구**, 23(4), 183-210.
- 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내현적, 외현적 자기에성향자의 자기개념 명료성과 부정적 정서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2), 1-18.
-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증적 경향, 자기개념, 자의식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95년차학술발표논문집**, 277-290.
- 정주영 (2015).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공격성 간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분석. **한국교육학연구**, 21(4), 327-345.
- 최정인 (2008). **평가적 피드백에 따른 자기에성향자의 자존감 변화 및 정서조절 방략**.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수정 (1999). **자기에적 성격성향자의 외현적·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성훈 (2010). 자기에 성격 성향자들의 자기구조특성: 외현형 및 내현형 자기애의 하위 분류에 따른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3), 507-531.
- Anderson, E. (1994). The code of the streets. *Atlantic Monthly*, 273, 81-94.
- Ang, R. P., & Yusof, N.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aggression, narcissism, and self-esteem in Asian children and adolescents. *Current Psychology*, 24, 113-122.
- Barnett, M. D., & Powell, H. A. (2016). Self-esteem mediates narcissism and aggression among women, but not men: A comparison of two theoretical models of narcissism among college stud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9, 100-104.
- Barry, C. T., Frick, P. J., & Killian, A. L. (2003). The relation of narcissism and self-esteem to conduct problems in children: A preliminary investiga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Adolescent Psychology*, 32, 139-152.
- Baumeister, R. F. (1997). *Evil. Inside human violence and cruelty*.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Baumeister, R. F., Bushman, B. J., & Campbell, W. K. (2000). Self-esteem, narcissism, and aggressio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9(1), 26.
- Baumeister, R. F., Smart, L., & Boden, J. M. (1996). Relation of threatened egotism to violence and aggression: The dark side of high self-esteem. *Psychological Review*, 103, 5-33.
- Bigler, M., Neimeyer, G. J., & Brown, E. (2001). The divided self revisited: Effects of self-concept clarity and self-concept differentiation on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0(3), 396-415.
- Bogart, L. M., Benotsch, E. G., & Pavlovic, J. D. (2004). Feeling superior but threatened: The relation of narcissism to social comparison.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6(1), 35-44.
- Broidy, L. M., Nagin, N. S., Tremblay, R. E., Bates, J. E., Brame, B., Dodge, K. A. et al. (2003).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childhood disruptive behaviors

- and adolescent delinquent: A six-site, cross-natio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39(2), 222-245.
- Bushman, B. J., & Baumeister, R. F. (1998). Threatened egoism, narcissism, self-esteem, and direct and displaced aggression: Does self-love or self-hate lead to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219-229.
- Bushman, B., Baumeister, R., Thomaes, S., Ryu, E., Begeer, S., & West, S. (2009). Looking again, and harder, for a link between low self-esteem an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77(2), 427-446.
- Buss, A. H.,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452-459.
- Cairns, R. B., Cairn, B. D., Neckeman, H. J., Ferguson, L. L., & Garipey, J. L. (1989). Growth and aggression: I. Childhood to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20-330.
- Campbell, J. D. (1990). Self-esteem and clarity of the self 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539-540.
- Campbell, J. D., Assanand, S., & Paula, A. D. (2003). The structure of the self-concept and its relation to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71(1), 115-140.
- Campbell, J. D., Trapnell, P. D., Heine, S. J., Kartz, I. M., Lavalley, L. F., & Lehmann, D. R. (1996). Self-concept clarity: Measurement, personality correlates, and cultural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41-156.
- Donahue, E. M., Robinson, R. W., Roberts, B. W., & John, O. P. (1993) The divided self: Concurrent and longitudinal effects of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social roles on self-concept differenti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834-846.
- Donnellan, M., Trzesniewski, K., Robins, R., Moffitt, T., & Caspi, A. (2005) Low self-esteem is related to aggression, antisocial behavior, and delinquency. *Psychological Science*, 16(4), 328.

- Farrell, A. D., Sullivan, T. N., Esposito, L. E., Meyer, A. L., & Valois, R. F. (2005). A latent growth curve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aggression, drug use, and delinquent behaviors and their interrelations over time in urban and rural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5*(2), 179-204.
- Greening, L., Stoppelbein, L., Luebke, A., & Fite, P. (2010). Aggression and the risk for suicidal behavior among children. *Suicide & Life Threatening Behavior, 40*, 337-345.
- Jankowski, M. (1991). *Islands in the street: Gangs and American urban socie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eppel, G., & Zedeck, S. (1989). *Data analysis for research designs*. New York: W. H. Freeman.
- Kernis, M. H. (2003). Toward a conceptualization of optimal self-esteem. *Psychological Inquiry, 14*, 1-26.
- Kernis, M. H., Grannemann, B. D., & Barclay, L. C. (1989). Stability and level of self-esteem as predictors of anger arousal and host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 1013-1022.
- Konrath, S., Bushman, B. J., & Campbell, W. K. (2006). Attenuating the link between threatened egotism and aggression. *Psychological Science, 17*, 995-1001.
- Kuppens, S., Laurent, L., Heyvaert, M., & Onghena, P. (2013).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multilevel and sequential meta-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49*, 1697-1712.
- Linville, P. W. (1987). Self-complexity as a cognitive buffer against stress related illn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663-676.
- Lochman, J. E., & Wells, K. C. (1996). A social cognitive intervention with aggressive children: Prevention effects and contextual implementation issues. In R. Dev. Peters, & R. J. McMahon (Eds.), *Preventing childhood disorders*,

- substance abuse, and delinquency* (pp. 111-143). Newbury Park, CA: Sage.
- Loeber, R., & Stouthamer-Loeber, M. (1998). Development of juvenile aggression and violence: Some common misconceptions and controversies. *American Psychologist, 53*, 242-259.
- Long, D. F. (1990). *The anatomy of terrorism*. New York: Press.
- Markus, H. R., & Wurf, E. (1987). The dynamic self-concept: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8*, 299-337.
- Markus, H., & Nurius, P. (1986). Possible selves. *American Psychologist, 41*, 954-969.
- Mathieson, L. C., & Crick, N. R. (2010). Reactive and proactive subtypes of relational and physical aggression in middle childhood: Links to concurrent and longitudinal adjustment. *School Psychology Review, 39*(4), 601-611.
- Nezlek, J. B., & Plesko, R. M. (2001). Day-to-day relationships among self-concept clarity, self-esteem, daily events, and mood.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2), 201-211.
- Orth, U., Robins, R. W., & Roberts, B. W. (2008). Low self-esteem prospectively predicts depression in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3), 695-708.
- Papps, B. P., & O'Carroll, R. E. (1998). Extremes of self-esteem and narcissism and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and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24*, 421-438.
- Raskin, R., & Hall, C. S.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45*, 590.
- Raskin, R., Novacek, J., & Hogan, R. (1991). Narcissism, self-esteem, and defensive self-enhancement. *Journal of Personality, 59*(1), 19-38.
- Rasmussen, K. (2016). Entitled vengeance: A meta-analysis relating narcissism to provoked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42*(4), 362-379.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Salmivalli, C. (2001). Feeling good about oneself, being bad to others? Remarks on self-esteem, hostility, and aggressive behavior. *Aggressive Violent Behavior*, 6, 375-393.
- Scott, B. G., Lapre, G. E., Marsee, M. A., & Weems, C. F. (2014) Aggressive behavior and its associations with posttraumatic stress and academic achievement following a natural disaster.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43(1), 43-50.
- Stopa, L. (2009). Why is the self important in understanding and treating social phobia?. *Cognitive Behaviour Therapy*, 38(S1), 48-54.
- Stopa, L., Brown, M. A., Luke, M. A., & Hirsch, C. R. (2010). Constructing a self: The role of self-structure and self-certainty in social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11(1), 1-11.
- Stucke, T. S., & Sporer, S. L. (2002). When a grandiose self-image is threatened: Narcissism and self-concept clarity as predictors of negative emotions and aggression following ego-threat. *Journal of Personality*, 70, 532-590.
- Tate, R. L. (1984). Limitations of centering for interactive models.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13, 251-271.
- Toch, H. (1993). Good violence and bad violence: Through self-presentations of aggressors accounts and war stories. In R. B. Felson, & J. T. Tedeschi (Eds.), *Aggression and violence: Social interactionist perspectives* (pp.193-20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Trzesniewski, K. H., Donnellan, M. B., & Robins, R. W. (2003). Stability of self-esteem across the life s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1), 205-220.
- Twenge, J., & Campbell, W. (2003). Narcissism, social rejection, and agg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 261-272.
- Walker, J. S., & Bright, J. A. (2009). False inflated self-esteem and violence: A systematic review and cognitive model. *The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and Psychology, 20, 1-32.

Webster, G. D. (2006). Low self-esteem is related to aggression, but especially when controlling for gender: A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Donnellan et al. (2005). *Representative Research in Social Psychology, 29*, 12-18.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4), 590-597.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aggression among adolescents: The moderating effects of narcissism and self-concept clarity

Cha, Jaesun* · Lim, Sungm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s of narcissism and self-concept clar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aggression among adolescents. In particular, the question as to whether self-concept clarity was the moderating variable or not when narcissistic self-esteem had an effect on aggression was investigated. The data of 784 high school students were used for analyses of the moderating effects by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lower self-esteem levels, lower self-concept clarity and higher narcissism levels indicated higher aggression levels. Second, it showed that the effects of interaction among self-esteem, narcissism and self-concept clarity on aggression were meaningful. In terms of the group which had low scores in self-concept clarity,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self-esteem and narcissism for aggression was meaningful. However, in terms of the group with high scores for self-concept clarity, the effect was not meaningful. A theoretical discussion of self-concept clarity and the effect on aggression and the implications of counseling intervention for aggressive adolescents were also suggested.

Key Words: aggression, self-esteem, narcissism, self-concept clarity

투고일: 2016. 9. 5, 심사일: 2016. 11. 1, 심사완료일: 2016. 11. 10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sungmoon@cbnu.ac.kr